

초분, 한국 이중장제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 부패와 뼈로의 환원을 중심으로

조 자 현*

국문초록

초분은 살이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관에 넣은 시신을 쪼개로 싸두는 초기 형태의 임시 무덤을 말한다. 모든 살이 다 없어지고 나면, 초분은 해체되고, 뼈만 추려 다시 묻는다. 이러한 방식의 초분은 따라서 처음 시신의 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매장과 이후 남은 부분(뼈나 재)을 영구히 매장 하는 이중장제에 속한다.

초분은 사람이 잘 가지 않고, 집에서도 떨어져 있지만, 유족이 가서 돌볼 수 있는 곳을 택해 만들어지는데,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으면서도 고요히 격리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심리적인 재생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초분을 두는 기간, 일차장의 기간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뼈만 남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하여 초분을 해체하였을 때 완전한 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초분이 부패와 뼈로의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패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연금술 문헌에서 보듯 동시에 일어난다. 부패의 최종 목적은 육신을 영적 상태로 만들고, 그리하여 죽은 자를 다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패를 견뎌내고, 썩는 냄새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썩히는 것은 그리하여 육화된 세계, 몸을 용해시켜 없애고, 그 핵심, 열매만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패의 과정은 자기 스스로의 오염되고 끔찍한 측면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무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오게 하는 것이다. 원형적인 세계, 무의식은 우리가 접근하려 할 때, 종종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더러운 무엇으로 경험된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정신의 이 끔찍하고 오염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낼 때만이, 무의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과 새로운 삶의 감각이라는 축복을 주는데, 이것이 부패가 의미하는 것이다.

뼈와 골격은 생명의 부술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를 상징한다. 뼈는 재생을 위한 최소 단위이자, 재생의 바탕이 되며,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뼈의 상태로 환원은 생명의 바로 그 원천으로 돌아감을,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 심리적으로 자신의 자아중심성을 버리고, 자기가 개성화의 전 과정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발달을 위해, 골격 상태로의 환원의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은, 자아의 죽음의 선언이며, 그 목적은 자신을 썩기 쉽고 덧없는 살과 피, 육신에서 해방시키고, 전체로서의 영적인 갱신, 생명의 불멸의 요소를 얻기 위함이다.

초분은 또한 식물의 순환에서 해마다 보이는 부패와 생명의 부활을 보여준다. 초분에서는 이러한 식물의 순환의 상징이 다른 일반적인 한국 전통 상징례에서보다 명확하고 강하게 드러나는데, 죽음에도 살아남는 생명의 부분을 식물의 상징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 초분과 관련된 식물은 죽음 후의 생명의 지속성, 심리적으로 말해, 자기의 존재를 말한다. 초분에서 드러나는 풍부한 식물의 이미지들은, 모든 것이 사라진 죽음의 상태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신에 끝없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원히 존재하며 의식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중심 단어 : 초분 · 이중장제 · 부패 · 뼈로의 환원 · 죽음과 부활.

들어가는 말

초분은 시신을 곧바로 땅에 묻지 않고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어두고,

이영과 용마름 등으로 덮어 살이 썩기를 기다리는(탈육이라 한다) 초가 형태의 임시 무덤을 말한다. 초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체하여 씻골한 다음 최종적으로 땅에 묻는 본장을 하게 되는데, 시신을 한번에 매장하지 않고, 일차장에서 육신을 완전히 썩힌 후, 이차장에서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하는 이중장제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장제는 선사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장제로서 시대의 변천과정을 밟으면서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요소가 복합되고 습합하면서 전승되어 온 장제이며 그 기록이 기원전 1세기경까지 올라간다.¹⁾

고고학 자료에서도 북방 지식묘의 석실구조로 복장적 처치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하기도 한다.²⁾

사체를 나무에 줄로 묶고 달아매거나, 나무 사다리에 늘어뜨려 놓거나, 그대로 산야에 방치하는 풍장이 시체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처리를 하지 않는 반면, 복장은 1차장장을 하였다가 2차장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풍장과는 구분이 된다.³⁾

초분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조분, 초빈, 외빈, 고름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흔히 한자로 초분(草墳)이라 쓰는 것은 일차장 때 대개 짚으로 이영을 엮어 덮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⁴⁾

여러 문헌자료와 연구들은 초분이 남서해안의 도서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음을 밝혔는데, 일제 강점기에 위생법의 제정에 따른 화장의 권장과 초빈 금지, 그리고 최근에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따른 생활개선 등으로 초분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⁵⁾

나는 이 논문에서 다른 상장례 형태들보다 그 원초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초분장을 중점적으로 고찰 함으로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초

1) 정종수(1990) : “우리나라 장제”, 《영원한 만남-한국상장례》, 국립민속박물관, 미진사, 서울, p138.

2) 정종수(1990) : 같은 책, p138.

3) 정종수(1990) : 같은 책, p139.

4) 이두현(1974) : “장제와 관련된 무속연구-특히 초분과 씻김굿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6 : p7.

5) 정종수(2003) : 《한국의 초분》, 국립민속박물관, 삼광문화사, 서울, pp10-11.

분의 심리학적인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심리학의 지혜를 통해 초분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무의식 속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그 상징성을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상징이 개성화과정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려 한다.

초분의 분석심리학적 고찰에 관한 원 논문은 취리히 International School of Analytical Psychology의 디플로마 논문으로 쓰여졌고, 여기서는 초분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은 일부, 특히 초분장에서의 부패과정과 뼈로의 환원, 식물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자료와 방법

초분에 관한 여러 책자, 논문, 초분과 연관된 무속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실제 현장조사는 청산도의 2개의 초분의 방문, 초분 이장의 참여, 초분을 만든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초분관련 다큐멘터리 영상과 음성녹취 기록등을 참고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고찰할 초분의 과정을 청산도 섬의 초분양식, 그 중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두 초분 중 하나의 주인인 고 김성학씨가 생전에 한 초분 방식(이는 그의 녹음된 구술기록과 샘이깊은 물 1995년 4월호 페이지 144-151에 실린 김성학씨가 주도한 초분장의 기록), 그리고 그 아들 김장섭씨의 인터뷰와 그가 직접 한 부모님(고 김성학, 정채엽)의 초분과정을 주로 살폈다.

다양한 변이의 초분장의 과정에는 씻김굿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씻김굿 과정을 살피는 것은 너무 방대한 일이 될 것이어서 따로 고찰하지는 않았다.

초분만들기는 잘 정리되고 규정된 하나의 절차나 전통이 아니라 만드는 이의 이해, 지식, 종교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등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시대, 역사적 배경, 문화와 사회의 요구등에 따라 달리 행해져 왔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자칫 연구 자체를 산만하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많은 초분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주로 다루었다.

죽음과 관련된 용과 폰 프란츠등의 생각들을 통해 초분과정을 이해하려 하지만, 죽음 자체에 관한 방대한 심리학적 논의나, 장례절차 자체에 관한 확장

된 연구는 이 논문의 목적과 다르므로 간략히 다룰 것이다.

이 논문에서 나오는 초분의 형태와 과정, 그리고 심리화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관에 시신을 놓힌 형태로 초분을 만드는 누운 초분과, 유골을 나무상자나 종이상자 등에 마치 가부좌를 트고 앉은 사람의 형태로 보관하는 앉은 초분 중 누운 초분에 대한 것이다(여기에 대해 박종오는 누운 초분은 세골의 목적으로, 세골을 위한 유탈의 기능으로, 앉은 초분은 수습한 유골을 보관하면서 명당자리를 찾고, 자신들에게 맞는 운대를 기다리기 위함으로 그 목적을 달리한다고 보았다).⁶⁾

1. 초분장의 과정

초분장은 1차장(초분을 만들고, 시신을 묻고, 관리하는 과정)과 2차장(본장이라고도 하며 초분을 해체하고, 영구히 묻을 장소에 일반적인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으로 나뉜다.

2. 초분의 위치

초분들은 대부분 산의 아래쪽,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과 평지(논, 밭)의 경계부에 대부분 위치한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후손의 경작지 주변에 만든다고도 한다.⁷⁾

다른 연구에서는 초분을 하는 장소로는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마을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을 택한다 하며 대개 선산의 밭치나 자기 집 밭 한구석에 만든다고 하였다.⁸⁾

금오도의 초분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초분할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지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인 소유지나 마을의 공동의 초분 터를 사용한다며 대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밭과 산의 경계지역에 많이 조성한다고 하였다.⁹⁾

사람이 잘 가지 않고, 집에서도 떨어져 있지만, 유족이 가서 돌볼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으면서도 고요히 격리될 수

6) 박종오(2005) : “송이도의 초분 고찰- “앉은 초분”의 형태와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1 : 325.

7) 정중수(2003) : 같은 책, p60.

8) 구리모토 요시키(1995) : “장산도의 초분”, 《남도민속연구》, 3 : pp149-150.

9) 정중수(2003) : 같은 책, p98.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곳은 심리적인 재생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분석심리학자 Andreas Schweizer는 이러한 재생의 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새롭게 됨과 재생은 지하세계의 피신처에서 일어난다, 이는 모든 지상의 혼란스럽게 하는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신성한 이 영역은 이 세상뿐 아니라 혼란과 죽음의 비 존재의 영역, 그 심연의 해로운 영향에서도 보호되어야만 한다.”¹⁰⁾

이는 초분, 헤르메스의 용기 Hermetic vessel 로서의 초분을 위치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작업을 위한 돌봄과 보호가 가능한 곳이 아닐까?

산과 평지의 경계 부에 있는 초분은 산의 상징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힌두교에서의 산은 어머니여신과 관련되어있다. 천국과 가깝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변화에서 보듯 산은 종종 계시의 장소가 된다. 많은 창조신화에서 산은 방향성, 지향성의 장소인데, 방위기점에서 처음 출현한 네 산들이 그 예이다. 교회의 사도와 영적 인도자들도 교회의 어떤 교부들에 의해 산과 동일시되었다.

중세 저술가 Richard de Saint Victor 는 산을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영감을 받은 지혜로 이끄는 자기인식 self-knowledge의 상징으로서 있는 곳, 긴 탐색의 목표, 영원으로의 이행의 장소가 된다고 보았다. 산의 주제는 또한 자기를 나타낸다.”¹¹⁾

이러한 상징들을 고려해 보면, 초분을 만드는 장소가 흔히 평지와 산의 경계이고, 시체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산 쪽이라는 것은, 자기인식 self-knowledge과 방향성을 얻으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또한 개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죽음의 상태에 놓인 인간이 자기를 향한 자아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통해서 개인이 이러한 심리학적인 죽음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산으로 가는 것은 원 고향으로 가는 것이며, 자아가 자기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초분을 만드는 장소, 일차장을 위한 장소는 지관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도 있

10) Schweizer A(2010) : *The Sun God's Journey through the Netherworld*,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Y, p26.

11)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revised ed., Shambhala, Boston, MA, pp128-129.

지만 초분을 해체하고 최종적으로 유골을 묻는 이차장을 위한 장소는 최종장이므로 “지관이나 풍수에 밝은 사람에게 물어 정한다.”¹²⁾는 점은 초분의 장소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기본 관념, 즉 묻는 장소가 후손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행을 위한 장소(the place for transition, liminality)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은 의식의 정지,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이다. 죽어가는 과정은 무의식으로의 하강을 의미하게 되는데 초분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전이기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집을 산자를 위한 공간과 의식 세계, 최종적으로 묻힐 무덤을 신들의 세계, 조상의 세계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로 본다면, 초분의 장소는 의식과 무의식이 혼합되는 곳,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무의식과의 혼합은 의식에게는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영들의 세계 또한 산 자의 그것과 구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초분의 장소도 마찬가지이다. 초분은 대부분 집이나 마을과 선산의 경계, 바다와 가까운 산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분을 만든 후손이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샤먼이 주의 깊게 이승과 저승을 만나게 하듯, 후손이 위협을 감당하고 이승의 것과 저승의 것을 섞는 작업을 하는 것은 마치 연금술사가 그 작업 opus를 위해 만드는 연금술의 용기 alchemical vessel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일반적인 초분 만들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초분할 장소가 장해지면, 미리 땅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굵은 돌(직경 20cm 전후)로 관 넓이만큼 펴서 깔아놓는다. 발인 후에는 상여로 운구하여 초분장소에 도착하면, 덕대 위에 짚(가마니, 멩석 등)을 깔거나(화양면),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관보다 조금 넓게 펴서 깎 후에(청산도) 그 위에 관을 놓는다. 그런 후에 관위에 명정이나 관의(官衣)를 덮거나(화양면), 꺾은 소나무 가지와 짚(가마니 등)으로 덮는다(청산도). 이어 이영으로 관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최종으로 용마름을 올려놓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끼줄로 가로 세로로 엮어 묶고 사방에 돌을 묶어둔다(화양면, 청산도).”¹³⁾

12) 구리모토 요시끼(1998) : “한일 이중장제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13) 정종수(2003) : 같은 책, p207.

초분을 싸는 짚으로 만든 이불형태의 이엉 혹은 마람은 보통 세장, 다섯장, 일곱장 같은 식의 홀수로 덮는 경우가 많고, 새끼줄도 홀수의 원새끼를 쓴다.

3. 초분에 사용하는 솔가지와 소나무

소나무를 초분에 꽂는 풍습은 고구려 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주변에 솔과 잣을 심어야 한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학자도 있고, 솔잎이 짐승이나 귀신을 쫓아내 그 것들이 시신에 근접치 못하게 하려고 생긴 풍습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거나 초분을 만든 후손들은 음력으로 달 초하루, 보름을 챙겨 솔가지를 꽂는 것을 권했고 “초분이 항상 푸르면(소나무 가지로) 후손이 효자”로 여겨졌다 한다.¹⁴⁾

초분에 사용하는 솔가지는, “후손이 왔다 갔다는 표시로 꽂는다(개도). 또는 소가 초분의 짚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분 주위에 생솔가지를 두르거나, 초분에 솔가지를 꽂는다(청산도, 송이도). 한편 집안에 우환이 없도록 솔가지를 꽂는다(도초도). 그리고 초분을 두른 새끼줄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솔가지를 꽂는다(중도).”¹⁵⁾라고 하며 여러 이유로 사용된다.

솔가지는 여기서 후손이 망자를 기억하려는 노력과 망자에 대한 애뜻한 마음,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뿐 아니라 죽은자가 새로운 삶으로 가기를, 그리하여 영원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식물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연관된 아티스의 신화와 의례, 비문에 있어서도 소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의례에서 사람들은 소나무를 제비꽃이나 양털 리본으로 장식하여 숲에서 운반해오고, 소나무에 매다는 인형은 아티스의 분신으로 여겨졌다. 프리지아인들이 소나무를 숭배한 이유를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는, 계곡의 가을 나무들이 퇴색해가는 것과는 달리, 높은 산봉우리에 군생하는 소나무의 변함 없는 녹색이, 하늘처럼 영원 불변하는 존재의 신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 때문이라 추측했다. 그는 또한 남유럽과 로마에서 솔방울을 식용으로 먹었던 것, 풍요다산의 상징 혹은 도구로 간주되었던 테스모포리아 축제(여기서 솔방울은 토지와 여자 자궁의 다산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돼지나 여타 동물의 생식력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함께 데메테르의 신성한 구덩이 안에 던져졌다)를 예로 들어 소나무가 가진 유용성, 영양과 생명을

14) 박종영(1995) : “청산도의 마지막 초분”, 《샘이깊은물》, 서울, p151.

15) 정중수(2003) : 같은 책, p207.

유지시키고, 풍요 다산을 기원하는 상징으로의 존재했음을 이야기한다.¹⁶⁾

초분에서의 솔가지는 항상 푸르다는 것과 관련된 생각, 무덤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삶의 지속성에 대한 관념을 나타낸다.

초분의 벚꽃은 해가 지나며 썩게되고, 다시 새로운 벚꽃을 갈아줌으로서 식물의 생의 순환을 보여주는 반면, 솔가지는 그러한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과 죽음 뒤에도 지속되는 생명의 유지, 그리고 이후의 재생과 부활(이를 통한 풍요와 다산, 생식력)을 상징한다.

4. 왼새끼

왼새끼라는 것은 두 가닥의 짚을 꼬아 새끼를 만들때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줄과 달리 왼쪽 방향으로 꼬아 만든 줄이라는 의미이다. 양 손에 한쪽씩의 짚을 잡고 새끼를 꼰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한국의 새끼줄은 오른손을 시계방향으로 아래로 시계방향 원을 그리고 왼손에 잡은 짚의 줄기를 위쪽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새끼를 만들어간다. 왼새끼에서는 두 손을 각각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새끼를 만든다.

이러한 방향, 즉 시계반대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이동은 심리적으로 무의식으로의 방향을 나타낸다.

중심 주위의 반시계방향 운동에 있어서, 왼손, 더러운 손은 중심을 향해 놓여진다. 이러한 반시계방향 운동의 목적은 더 이상 보이거나 살아있지 못한 중심의 신적 이미지의 재생이다. 이런 반시계운동은 따라서 무의식으로의, 죽음으로의, 부활로의 그리고 새로운 상징의 탄생으로의 방향전환이다.¹⁷⁾

이렇게 만든 왼새끼는 금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하여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한국어 발음 그대로 금(禁)줄은 금지(禁止)의 뜻을 지닌다는 시각이다. 신생아가 태어난 집에 늘인 금줄은 바깥사람의 출입을 금하는데 목적을 둔다. 마을에 굿이 행해질 때 동네 입구나, 무당의 집,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집 등에 쳐두었던 금줄도 신성구역과 일상구역을 구분하고 잡신의 침입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16) Frazer JG, 박규태 역(2005) : 《황금가지 제1권》, 을유문화사, 서울, pp828-829.

17) Abt T(2005) : *Introduction to Picture Interpretation*, Living Human Heritage Publication, Zurich, Switzerland, p74.

둘째, 금줄을 유사한 발음인 ‘김’에서 왔다는 견해이다. 신성한 단어로 추정하면서, 감아둔 대상에 신성성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마을 입구에 세워둔 마을을 지키는 나무상이나, 탑, 오래된 나무 등에 감아둔 줄이 그 예이다.¹⁸⁾

출생과 동시에 처지는 원새끼줄은 세상 밖과 집 안을 차단하는 절대적인 경계가 되는 선이다.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금줄이 걸린 21일 뒤에야 세상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이 새끼가 제거되면 손님들이 집을 방문하고, 금기의 기간은 끝나게 된다.

이러한 원새끼는 하나의 변환이 끝날 때까지 그 안과 밖을 분리하고, 죽은자와 산자를 분리하며, 안의 내용물을 보호한다.

Andreas Schweizer는 이런 살아있는 자의 일시적인 세계로부터 내세를 명백히 분리하는 것은 보호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한다. 심리학적인 단계에서, 이는 객관적 정신과 그의 신성한 이미지들을 단순한 자아의 목적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자아에 의한 침해와 학대들로부터 무의식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⁹⁾

초분을 만들고 나면, 죽은 자의 몸에서 통상 살이 썩고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린다. 보통 2~3년이라 하나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후손의 사정(경제적인 경우나 가족 개개인의 일정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1995년 장산도 라는 섬을 조사한 구리모토 요시끼는 초분 기간에 대해 ‘보통 3년에서 5년이지만 그 집안의 경제적 요건에 따라 다소 길게 된다’ 라고 보고하였고,²⁰⁾ 다른 연구에서는 운의 시기가 맞으면 5~6년만에 옮기지만 보통 10년 정도가 지나야 옮긴다고 하며 그 이유로 살이 완전히 제거되는 시기가 10년 가량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¹⁾ 많은 경우 초분의 이장 기간은 일정하지 않은데 3년정도 지나면 시신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장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장할 장소의 선정이 어렵거나, 그 집안의 운세 및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 초분의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중장의 연구에서도 최종 매장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

18) 주강현(2002) : 《왼손과 오른손-좌우 상징, 억압과 금기의 문화사》, 시공사, 서울, pp319-320.

19) Schweizer A(2010) : 같은 책, p33.

20) 구리모토 요시끼(1995) : “장산도의 초분”, 《남도민속연구》, 3 : 149.

21) 박종오(2005) : 같은 논문, p314.

도 있다 하면서 최종장에 수반되는 아주 복잡한 연회를 준비하는데 일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최종장의 지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물질적 준비가 완료되어도, 시신을 묻는 것을 사후에 즉각 하지 않는 것은 시신이 완전히 썩어 뼈만이 남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하면서²²⁾ 시체의 상태, 완전한 해골화 complete skeletization가 인도네시아의 이중장의 지연 시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며, 이중장에서 목표로 하는 뼈로의 환원을 위해 일차장의 기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초분을 두는 기간, 일차장의 기간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뼈만 남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하여 초분을 해체하였을 때 완전한 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5. 초분과 연금술의 용기(*Vas Hermeticum*)

사체를 처리하고 작업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연금술의 아이디어와 연결되어 왔다. 초분은 그 구조와 작업의 성질로 볼 때 많은 부분에 연금술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분 자체는 죽음이 다루어지고, 살이 썩고 재생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연금술의 용기 *Vas Hermeticum*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에 관련된 상징을 연금술에 관한 책인 현자의 장미원(Rosarium Philosophorum)에 나타난 연금술의 작업 중 죽음에 관한 글에서 볼 수 있다. 왕과 왕비는 결합 후 죽음의 상태에서 헤르메스의 그릇 *Vas Hermeticum*에 누워있다.

헤르메스의 그릇(연금술의 그릇-역주), 샘과 바다는 여기서 관이며 무덤이 되었다. 두 쌍은 죽고 머리 두 개 달린 몸으로 융접되었다. 삶의 축제 뒤에는 죽음의 통곡이 따른다. 가브리쿠스 Gabricus가 누이동생과의 합일 뒤에 죽듯이,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모신(母神)의 아들 애인이 신성혼 뒤에 일찍 삶을 마감하듯, 대극의 융합 뒤에 죽음과 비슷한 정지 상태가 출현한다. 그러니까 대극이 서로 하나가 되면 모든 에너지는 중단된다. 더 이상 아무런 낙차가 없는 것이다. 그림은 부패 putrefaction, 썩음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 있

22) Hertz R, trans. trans. Needham RC(1960, reprinted in 2004) : *Death and the Right Hand*, Routledge University Ed.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Oxford, UK, p31.

던 형상의 붕괴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림은 수태 *conceptio*라고도 불린다.²³⁾

유족이 초분을 정성껏 관리하고 돌보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마치 연금술사가 연금술의 그릇을 관리하는 것이 비길 수 있다. 연금술의 그릇 안에 있는 것은 값진 물질이며, 항상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의식으로의 통합을 꺼려하는 메르퀴리우스이다.²⁴⁾

헤르메스 심령의 회피하는 성질은 혼돈을 길들이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이 심령 *spirit*은 *cervus fugitivus*, 즉 도망치는 숫사슴으로 항상 도망치려 하던 차였다. 이 정신의 도망치는 성질 때문에, 연금술의 작업 *the Opus alchemicum*은 성공하려면 명상이 동반된 고도의 집중을 요구했다.²⁵⁾

유족들은 여러 가지 금기와 의례들을 지키면서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킨다. 한편으로 그들은 격리기간 동안 여전히 직업을 행하고,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이는 폰 프란츠가 언급한 “연금술 작업의 이중적인 면(*the double face of alchemy*),²⁶⁾ 개성화 과정에서의 이중적인 특성(*the twofold natur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과 유사하다.

초분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초분을 관리하는 내내 유족은 적절한 에너지를 유지하도록(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주의해야 한다. 시신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의 부패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위에서 전해들은 지식과 자신의 직관, 그리고 냄새 따위의 감각을 이용해서 부패의 과정 내내 초분을 봉인된 상태의 용기 *sealed vessel*로 유지해야 한다.

6. 사체, 부패, 뼈로의 환원

기독교 전통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장례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마치 살아있는 듯이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은 채 관에서 유족들을 맞이하고 있는 죽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서구 교회가 예전의 육체, 즉 시

23)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p277.

24)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같은 책, p291.

25) Schweizer A(2010) : 같은 책, p27.

26) Von Franz ML(1981) : *Alchemy*, Inner City Book, Toronto, Canada, p83.



그림 1. The double face of alchemy—laboratory and library—corresponds to the twofold nature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the active participation in outer reality and relationships, together with the process of inner reflection.²⁷⁾

신이 전체이며 이전처럼 전체로 부활해야만 한다는 관념에 대한 애착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폰 프란츠는 이를 죽은자의 전체 개체성, 심지어 생전에도 어떤 이는 자동적으로 몸과 동일시 하는, 완전한 자연상태 “just-so-ness”, 심지어 생애 동안,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몸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그것을 보존하려는 분투로 보았다. 나눌 수 없는 인격의 신비는 분명히 신체에 투사된 무엇이었다.²⁸⁾

반면 부패의 과정에서는 원래의 외모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조상의 세계로 편입을 위해서는 이 예전 물질적인 몸 자체에 대한 완고한 집착보다는 거듭남을 기다리는 오래된 육신의 씨앗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은 숨겨진 신비로운 잠재력, 부활의 과정의 잠재력을 시신에서 발견했다. 오리게네스는 또한 옛 육신을 말하길 죽은 이가 다시 자라는 모판이라 하였다. 이는 식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은 자가 예전처럼 삶으로 돌아온다는 광범위하게 퍼진 원형적 관념을 따른다. 따라서 식물의 이미지는 아

27) Von Franz ML(1981) : 같은 책, p83.

28)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On Dreams and Death*, Shambhala, Boston and London, p6.

주 자주 곧 죽게 될 사람의 꿈에 등장한다.²⁹⁾

이집트 태양신의 밤의 열두 시간을 통한 여행에서, 특히 태양신이 가장 극심한 어둠과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여섯째 시간에, 숨겨진 위대한 신비, 즉 태양신 레 Re의 시체가 놓여있다. 밝고 제한이 없는 하늘을 열망하는 태양신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바-영혼(ba-soul)과 지하세계에 취소할 수 없이 묶인 오시리스의 시체의 결합이라는 이 위대한 신비는 모든 생명의 재생과 전체성의 회복을 불러일으킨다.³⁰⁾

우리나라에도 ‘꿈에 송장을 만지면(보면) 재수가 좋다, 꿈에 송장을 보거나 피를 보면 돈(먹을 것)이 생긴다, 꿈에 송장을 집안으로 들여오면 좋다’와 같이 송장과 관련해 재물이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³¹⁾ ‘시체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 ‘꿈에 시체를 보거나 누가 죽은 꿈을 꾸면 고기 먹는다’, ‘꿈에 시체를 보면 산삼을 캔다’³²⁾라고 하여 시체가 가지는 풍요(돈, 고기, 행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시체가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라는 관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7. 부패, 썩히는 과정(Rotting, Putrefaction)

부패의 과정은 연금술에 관한 책인 Rosarium Philosophorum에 나타난 연금술의 작업에도 잘 나타나있다. 왕과 왕비가 한 왕관을 쓰고 죽어있는 그림이 죽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한다는 점은 초분의 작업 또한 부패의 끝에는 수태가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은 부패(Putrefactio), 썩음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 있던 형상의 붕괴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림은 수태(conceptio)라고도 불린다. 본문은 말한다: “하나의 파괴는 다른 하나의 생성이다.” 이로써 이 죽음은 한 중간 단계이고 거기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연금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먼저 낡은 것이 죽지 아니하고는 어떤 새 생명도 생길 수 없다. 그들이 밀알을 땅에 뿌리면 거기서 새 생명으로 깨어나기 위해 밀알은 죽는 것이다.”³³⁾

29)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10.

30) Schweizer A(2010) : 같은 책, p19.

31) 최래옥(1995) : 《한국 민간 속신어 사전》, 집문당, 서울, p53.

32) 최래옥(1995) : 같은 책, p54.

33)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역위원회 옮김)(2004) : 같은 책, pp277-278.



그림 2. 수태 혹은 부패.³⁴⁾

고대 이집트에서 매년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신이었던 오시리스는 또한 부패의 신, 늪지의 신으로 불린다. 고대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 그는 부패의 신이자, 녹색 늪지의 신으로 불리는데 녹색 늪지의 신이란 새로운 식물, 생명력 자체를 상징한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부패와 연결되어있으며, 시신, 그리고 시신의 부패에서 생명이 생겨난다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³⁵⁾

수메르 신화에도 인안나 여신이 지하세계로 하강하는 이야기가 있다.³⁶⁾

하늘, 사랑, 수태의 여신이었던 인안나는 아래로부터 불러졌을 때, 그 충동들을 따라 지하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하세계로 내려가기 위해 하늘과 땅을 포기했다. 지하세계로 가는 각각의 문에서, 그녀는 출발하면서 걸

34)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같은 책, p279.

35) Faulkner RO, ed. Andrews C(1985) : *The Ancient Egyptian Book of the Dead*, revised ed., University of Texas Press/British Museum Press, Austin, TX, p107.

36) Wolkstein D and Kramer SM(1983) : *Inanna : Queen of Heaven and Earth*, Harper and Row, New York, NY, pp52-60.

쳤던 옷과 장신구들을 하나씩 버려야 했고, 저승의 여신 레시키갈의 성에 들어갈 때, 인안나는 완전히 발가벗게 된다.

“인안나는 시체로 변했다,
 썩는 고깃덩이 조각으로,
 그리고 벽의 갈고리에 걸렸다.”³⁷⁾

여기서 인안나는 걸치고 있어왔던 모든 것을 버린다. 자신에게서 힘을 벗겨내고, 그리고 무방비의 무력한 상태로 두었다. 그녀는 남들이 자신을 죽이고, 시체로 만들고, 썩는 고깃덩이로 만들게 내버려두었다.

여기서 위대한 여신은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도록 내버려둔다.

그녀는 죽지만, 이 고통을 통해, 공예와 창조 의 신 엔키는 그녀를 되살린다.

여기에 삶과 죽음의 신비가 있다. 시작부터 인안나는 삶과 죽음의 원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충직한 하인 닌슈부르에게 이야기 하길 지혜의 신인 아버지 엔키는 생명의 음식을 알고, 생명의 물을 알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³⁸⁾

인안나가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시체가 되어 썩게 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임으로서 엔키는 마음이 깊이 동요하여 그녀를 돕기로 결정한다.

그리하여 여기서 부패의 과정은 생명과 삶을 되찾는 비밀, 생명의 물 자체로 불릴 수 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느껴질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믿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인들은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는 동안, 영혼은 쓰라린 고통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면,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고, 굴복하고 실패하면, 나비의 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믿었다.³⁹⁾ 중요한 변환을 위해서는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는 기간의 고통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임상에서 흔히 혼란, 인생의 방향성의 상실, 심한 우울증 혹은 중

37) Wolkstein D and Krammer SM(1983) : 같은 책, p60.

38) Wolkstein D and Krammer SM(1983) : 같은 책, p54.

39) Hertz R(1960, reprinted in 2004) : 같은 책, p47.

년의 위기등을 겪으며 클리닉을 방문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이 없어 괴로워하는 순간, 즉 정신분석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해야하는 일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우스 사원에서, 구하는 자는 먼저 불려져야 한다. 아픈 이들이 잠드는 장소는 abaton 혹은 adyton 이라 불렀는데 이는 가장 깊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이는 또한 초대받지 않고는 입장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신전에서 잠자도록 허가받은 이는 미리 신청하거나 초대 받은 자들이다.⁴⁰⁾

무의식적인 과정은 개성화 과정의 보이는 과정 뒤에 놓여있다. 아바톤(abaton)에서 보듯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부름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먼저 부르는 것은 자기(the Self)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부름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고 단지 이러한 자기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일 수만 있는데 나는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다른 심리학의 내용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위기, 혼란의 시기에 선부른 계획이나 동기부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인안나도 먼저 불려졌고, 소리에 귀 기울였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방문한 치유를 구하는 자들도 먼저 불리기를 기다려야 했다.

목욕과 희생제사를 마치고 나면 아바톤(abaton)에서 잠드는데 그곳에는 잠과 관련된 여러 신들의 상이 있다. 수면의 신, 자애로운 히브노스 에피도테스와 꿈의 신 오네이로스는 그리스의 시키온의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석상들이 있었다.⁴¹⁾

여기서 잠든다는 것, 신성한 존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육체적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더 크고 중요한 일(개성화라는 과정과 그것을 통한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잠과 꿈의 신과 접촉한다는 것은 무의식과의 접촉이고 그것

40) Meier CA(1989) : *Healing Dream and Ritual*, 3rd ed., Daimon Verlag, Einseideln, Switzerland, pp50-52.

41) Meier CA(1989) : 같은 책, p50.

을 통한 치유의 간구이다. 자아는 그 의지를 포기해야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또한 자아의 결단을 요구한다.

입문 의례에서, 입문자는 반드시 아주 겸허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태도로만이, 입문자 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Victor Turner는 신생아나, 사춘기의 입문 의례를 이야기 하면서, 역치에 도달해있는 이행기 존재(liminal entities)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내어진다고 하였다.

“입문의례 또는 사춘기 의례에서의 신참과 같은 이행기의 존재, 역치상태의 존재(liminal entities)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오라기만을 걸치거나 별거벗은 상태인 괴물들의 모습으로 변장하기도 하는데, 이 역치 상의 존재(liminal being)로서, 친족 체제에서 신분이나 재산, 건물, 휘장, 친족체제에서 계급이나 역할, 지위를 나타내주는 세속적인 복장을 갖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요약하자면 동료 신참이나 입문자들과 구별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보통 수동적이거나 겸손하며, 무조건 교사에게 순종해야하며, 독단적인 벌칙도 불평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서의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이 빚어지고, 추가적인 힘을 얻기 위해 어떤 균일한 조건으로 환원되거나 갈아 으깨어져야 하는 것과 같다. 계급이나 신분과 같은 세속적인 구분은 없어지거나 균일하게 된다. 이소마(Isoma)의 환자와 그 남편의 상태는 무덤이자 동시에 자궁을 나타내는 상징적 환경에서 수동성, 겸손, 거의 험벗음과 같은 속성들 중 일부를 갖고 있다.”⁴²⁾

멜라네시아 섬들에서도, 영혼은 부패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내내 약한 상태로 남는다는 믿음이 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한 후, 영혼은 처음에 정지된 상태로 머물며, 영혼이 갖고 있는 마술적인 힘은 일시적으로 무력하게 된다. 극미량의 부패의 냄새가 모두 사라질 때, 영혼은 다시 그 힘을 되찾고, 활력은 증진되어 토탄로라고 불리는 수호영이 된다.⁴³⁾

42) Turner V(1969) : *The Ritual Process :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Transaction, New Brunswick, NJ, pp95-96.

43) Hertz R(1960, reprinted in 2004) : 같은 책, p47.

샤머니즘에서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에스키모와 시베리아의 샤먼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형해를 목격하거나 빠로 환원되는 것을 목상하는 것이나 관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⁴⁴⁾ 이런 형해로 인한 빠로의 환원의 과정은 부패의 과정과는 차이가 있으나 빠만 남기게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고통을 무방비로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패를 견디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시체의 처리과정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또한 특정 탄트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웅적이고 종교적인 숙련자는 반드시 현실의 근원적 본질을 직면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사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끔찍하나에 상관 없이 삭티(*sákti*)가 스며들어있다는 것이다.

“화장터에 관해 명상하거나, 화장터에서 명성하거나, 거기서 사는 것은 영적인 시험으로 가능하다. 공포의 사마디(*samādhi*)(고양되고 강화된 의식상태)”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숙련자는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그녀로 하여금 근원적인 영적 진실들에 대한 유혹을 넘어, 혹은 그것을 통해 보기를 격려한다.

여신 자체는 때때로 남성신들을 유사한 시험을 겪게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마하바가바타-푸라나(*Mahābhāgavata-purāṇa*)에서, 그녀는 브라흐마(Brahmā), 비슈(Viṣṇu), 쉬바(Śiva)를 시험하기 위해 끔찍한 형태를 취한다. 그녀를 보는 것을 피하려, 브라흐마는 고개를 돌리고 비슈누는 눈을 감고 물로 뛰어든다. 쉬바만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계속할 수 있어, 이러한 영웅적 능력에 댓가로 그녀는 그에게 위대한 요기가 되는 축복을 준다. 유사한 각본에서, 이 여신은 세 남자신들에게 씌어가는 시체로 나타난다.

쉬바는 그녀의 악취를 향기로운 향이라 생각하고, 그는 그녀의 시체를 그의 가슴에 가져다댄다.

이 과정은 영적인 지망자들이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물체들이나 장소들에 있어서도 여신이 존재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⁴⁵⁾

44) Eliade M, trans. Trask WR(2004) : *Shamanism :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and Oxford, p62.

45) Kinsley D(1997) : *Tantric Visions of the Divine Feminine : the Ten Mahāvidyā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ley and Los Angeles, CA, pp234-235.

자기 스스로의 오염되고 끔찍한 측면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온다. 원형적인 세계, 무의식은 우리가 접근하려 할 때, 종종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더러운 무언가로 경험된다. 우리가 우리 정신의 이 끔찍하고 오염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낼 때만이, 무의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과 새로운 삶의 감각이라는 축복을 줄 것이다.

여기서 부패의 최종 목적은 육신을 영적 상태로 만들고, 그리하여 죽은 자를 다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패를 견뎌내고, 썩는 냄새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썩히는 것은 그리하여 육화된 세계, 몸을 용해시켜 없애고, 그 핵심, 열매만을 남기는 것이며, 심리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 핵심,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초분에서 보이는 부패 과정의 상징적 의미이다.

8. 뼈로의 환원

샤먼 의례에서, 입문자의 자기형해(dismemberment) 외에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뼈 상태로의 환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샤먼이 되기 위해 영들로 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위기나 질병들에서뿐 아니라, 길고 고통스런 탐색 후, 스스로의 노력으로 샤먼의 무력을 획득한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암마실릭 에스키모들에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샤먼 견습생은 오랜 시간을 눈오두막에서 보내는데, 특정 시간이 되어 죽음의 상태가 되어 수일 밤낮을 생명이 끊어진 채 지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거대한 북극곰이 그의 모든 살을 먹어 치우고 뼈로 환원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신비 체험 후에야 견습생은 샤먼의 무력을 선물로 받는다.⁴⁶⁾

엘리아데(Eliade)는 라스무센의 연구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샤먼은 초자연적인 것에서 나온 듯한 자기 두뇌의 힘으로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46) Eliade M, trans. Task WR(1994) :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 ; The Mysteries of Birth and Rebirth*, Spring Publications, Putnam, CT, p92.

자기 몸에서 살과 피를 분리시키고 오로지 뼈만 남게 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샤먼은 자기 뼈마디 하나 하나에 샤먼의 언어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자기 뼈를 불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샤먼은 죽으면 썩을 덧없는 살과 피에서 해방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봄으로써, 자신을 성별하고, 죽은 다음에도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육신의 바로 이 부분에 걸고 위대한 무업에 몸바칠 것을 약속한다.⁴⁷⁾

시베리아 샤먼의 경우 조상무나, 신비적인 존재에 의해 형해상태가 되지만, 에스키모의 경우 정신집중이라는 개인적인 노력과 금욕 생활을 통해 형해상태가 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이 신비적인 환상상태의 본질적인 요소는, 육탈된 존재가 되고 육탈된 뼈에 차례를 매기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여기서 뼈는 인간과 짐승의 생명의 원천이며, 한 인간이 형해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러한 원초적인 삶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해당한다. 즉 갱생, 신비적인 재생의 완성인 것이다.⁴⁸⁾

수렵민족에게, 뼈는 사람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생명의 귀의처이다. 이들은 바로 귀의처인 근원에서 그 종이 다시 형성되는 것으로 믿는다. 수렵민족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는 먹되, 그 뼈는 상하지 않게 하고 조심스럽게 주워 모아 관습에 따라 대 위에 안치하거나 나무 위에 두거나 바다에 던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동물의 매장은 정확하게 인간의 유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영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궁극적으로 뼈 안에 깃들이고 개체는 바로 그 뼈로부터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악마의 손에 맡겨진 자신의 죽음과 골격상태로의 최종적으로 환원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인도 티벳, 몽고 불교에서 특히 좋아하는 명상들이다.⁵⁰⁾

이들 경우에서, 샤먼과 관련해서, 혹은 티벳이나 몽고 불교에서, 육신이 분해되고 뼈만 남겨 썩여지는 것, 그리하여 혼이 뿔속으로 되돌아가고, 뼈에 다시 살이 오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방식의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얻어 거듭나게 됨을 의미한다.

47) Eliade M, 이윤기 역(1992) :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치, 서울, pp76-77.

48) Eliade M, 이윤기 역(1992) : 같은 책, p77.

49) Eliade M, 이윤기 역(1992) : 같은 책, p158.

50) Eliade M, trans. Task WR(1994) : 같은 책, p92.

뼈는 동물적인 생명의 최종적인 뿌리, 살이 계속해서 돌아나는 주형을 상징한다. 사람과 동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뼈로부터이다. 잠시, 사람과 동물들은 살의 존재 안에서 유지되다, 죽고, 뼈에 농축되어있는 정수로 생명은 환원되는데, 여기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뼈로 환원되어, 미래의 사면은 고갈되지 않는 우주적인 생명의 샘으로 되돌려줄 신비한 죽음을 겪게 된다.⁵¹⁾

한국인에게 있어 부모의 정기는 뼈이며 이 정기가 천지 생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천지의 생기를 향수한다면 부모의 뼈를 통해, 이 뼈가 생기에 썩여짐으로서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수에서는 부모의 시체가 빨리 부패하여 뼈로 되기가 쉬운 마듯한 자리를 길지로 한다.⁵²⁾

여기서 한국인에게 오랜 영향을 미친 음양오행설의 관점에서, 사람은 음과 양의 생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음과 양의 정기가 굳어져 먼저 부모가 되고, 부모에서 자식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식은 그 에너지, 음과 양의 혜택을 부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뼈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존재한다.

정중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박혁거세가 죽고 하늘로 올라가 7일 후에 유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는 기록을, 7일이 만월(滿月)의 중간으로 즉, 재생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며, 어떠한 시체의 분단도 재생 부활력을 획득하기 위한 신화적 표현이라 하였다.⁵³⁾

구리모토 요시끼도 이중장제를 다룬 그의 논문에서 고대인들이 죽어서도 이승과 같이 삶을 영위한다고 하면 새로운 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데, 재생부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뼈이며 뼈를 통해서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뼈를 중요시 하는 이중장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⁵⁴⁾

이부영은 ‘입무과정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뼈가 재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해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골격으로의 환원이며 그보다 더 작은 해체는 없다.

51) Eliade M, trans. Task WR(1994) : 같은 책, pp92-93.

52) 村山 智順(무라야마 지준) 저, 정현우 역(1991) : 《한국의 풍수》, 명문당, 서울, pp313.

53) 정중수(1986) : “한국 고대장제 대한 일고”, 《한국민속학》, 19 : 255.

54) 구리모토 요시끼(1998) : “한일 이중장제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6.

골격은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최소 단위 그 이상 분화할 수 없는 요소다. 뼈는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잃어버려도 안된다. 만일에 없어지면 다른 사람의 뼈를 빼와야 하고 이에 그 사람은 죽는다. 더 나아가 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 불변의 창조적 원천의 상징이며 영혼의 근원적인 구조이다.”⁵⁵⁾

“부활하는 육신의 씨앗은 옛 육신에 숨겨져 있다. 이 씨앗은 비르투스(a *virtus*), 원동력, 발생 혹은 발생원리인데 오리게네스는 이를 *spintherismos*라고 하며 불꽃의 발산이라고 특징지어 묘사하였다. 이 보이는 씨앗 속의 보이지 않는 발생원리는 실체를 갖고 있고, 그것은 육신의 부활의 근원이다. 그것은 죽은 자의 모판이며, 거기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폰 프란츠는 심리학적으로 이는 포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육신안에 들어있는 비밀, 말하자면 개성화 원리의 비밀이라면서, 그것은 육신 안에 있는 무엇이지 육신 그 자체는 아니라 하였다.⁵⁷⁾

이차장 때 온 유족들에게 드러나는 뼈는 바로 이러한 보이는 씨앗(재생을 위한)으로 그 상징적 기능을 한다. 이는 재생을 위한 최소 단위이자, 재생의 바탕이 되는 무기물로 존재하며 여기서 생명의 순환이,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사람의 죽은 몸은 또한 무기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말로, 그렇게 희망하듯, 식물의 형상이 보여주듯이 살아있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다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⁵⁸⁾

뼈의 상태로 환원은 생명의 바로 그 원천으로 돌아감을, 따라서 태고의 생명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하도도 신비한 재생과 부활의 과정이다.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자아중심성을 버리고, 자기가 개성화의 전 과정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발달을 위해, 골격 상태로의 환원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방향감각의 상실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의 목적은 자신을 썩기 쉽고 덧없는 살과 피, 육신에서 해방시키고, 전체로서의 영

55) 이부영(1969) : “입무과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 : 117.

56)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p7-8.

57)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8.

58)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37.

적인 갱신, 생명의 불멸의 요소를 얻기 위함이다.

재생을 위한 기본 단위는 당황스럽게도 재생이 가장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에스겔은 그 환상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옮겨졌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⁵⁹⁾

누군가가 심각한 위기의 한 가운데서 희망이 사라진 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해답을 알겠죠.’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삶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진정한 통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9. 식물의 순환(Vegetation)

새로운 생명이 시체에서 자라난다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관념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은 엘레우시스 신비, 아티스, 탐무즈 축제가 있고, 이집트의 죽음과 관련된 의례, 초기 연금술의 개념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는 동지중해에 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의식들을 이야기하며 오시리스, 탐무즈, 아도니스, 아티스의 이름으로 행해진 의례에서, 이집트와 서아시아 사람들은 해마다의 생명, 특히 식물의 생명의 부패와 부활을 나타내었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해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신으로 의인화 하였는데, 의례의 이름과 세부사항들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본질적

59) 대한성서공회(2007)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서울, 에스겔 37 : 3-5.

으로는 하나라고 말하였다.⁶⁰⁾

고대 이집트에서, 죽음과 부활이 해마다 슬픔과 환희의 교대로 기념되어진 신은 오시리스인데, 이는 모든 이집트 신들 중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오시리스를 자연, 특히 옥수수의 매년의 위대한 성쇠의 의인화라는 점에서 아도니스나 오티스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⁶¹⁾

이들은 자연 특히 식물(곡물)의 연례적인 대순환을 인격화한 신들과 개념인데, 파종의식, 곡식이 싹 터 나오는 생장의 징후와 곡물의 신을 관련지어 생각하였다. 곡물의 신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믿음이다.

오시리스와 연관된 이집트인들은 위대한 신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승에서의 의식뿐 아니라 저승에서의 영원한 희망을 보았다. 오시리스 신상들을 무덤에 같이 매장한 것이 죽은 자의 발아를 촉진하기 위한, 죽은 자의 영적 불멸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⁶²⁾

초분에서는 이러한 식물의 순환의 주제가 다른 일반적인 한국 전통 상. 장례에서보다 두드러져 보이며, 한국에 있었던 구토롱이라고 하는 다른 가매장형태를 생각해보면 그 주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구토롱은 통나무나 솔가지를 깔고 관을 놓고 가매장 하였다가 이후 다시 뼈를 수습하여 최종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다. 땅 위에 관을 놓고 흙으로 일반 산소 형태로 가매장하기 때문에 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⁶³⁾

훨씬 시간과 정성이 덜 들어가는 구토롱 대신 만들어지는 이차장의 형태로 초분이 벼나 보리의 짚을 사용하는것은 분명히 식물과 관련된 상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위함이다.

초분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로 틀을 만들고 나면, 짚으로 꼬아 새끼를 만들고, 짚을 이어 붙여 커다란 이불모양의 이엉과 용마름을 만들어 초분을 감싼다. 이엉은 대개 특정한 날(일반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후) 다시 갈아주거

60) Frazer JG(2009) : *The Golden Bough :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A New Abridgement from the Second and Thi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301-302.

61) Frazer JG(2009) : 같은 책, p366.

62) Frazer JG, 박규태 역(2005) : 《황금가지 제2권》 을유문화사, 서울, pp68-69.

63) 정종수(2003) : 《한국의 초분》, 국립민속박물관, 삼광문화사, 서울, p137.

나 썩은 짚 위에 다시 덮어주게 되는데 이는 해마다 하여야 하는 의례적인 과정이다.

초본을 덮는 주 재료로서의 짚은 대게 벼나 보리의 짚으로 해마다 짓는 농사와 관련이 있다.

식물, 곡물의 나고 죽음이 식물신들의 나고 죽음, 그리고 삶과 죽음 자체와 연관지어져 이해되었다.

이집트에서, 이시스의 죽은 남편인 오시리스는 밀이나 보리로 불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죽은자는 죽는 순간에 오시리스 신이 되며, 지신과 미이라는 항상 오시리스 NN 으로 호칭된다.⁶⁴⁾

폰 프란츠는 밀과 보리의 상징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여기서 밀과 보리는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아니라 정신적인 무엇, 죽음과 삶 너머에 존재하는 무엇, 보이는 이데아의 일시적 변성과 죽음을 통해서도 살아남는 신비한 과정을 위한 상징으로 말하였다. 보이는 생명을 나타내는 그 잎과 가지, 몸통은 불에 의해 파괴될 수 있지만, 그 나무의 열매, 인간의 심혼은 불태워지지 않고 정화되고 지상의 형태에서 해방된 후 천상의 곳간으로 옮겨질 것이다.⁶⁵⁾

이는 생명의 지속과 끊임없는 갱신을 의미한다.

식물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식물신들은 여기서 부활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폰 프란츠는 이들의 식물의 심리학적인 의미를 논할 때, 이는 죽음과 부활의 정신적 신비라고 하면서, 모든 식물이 직접 빛, 공기, 땅과 불과 같은 소위 죽어있는, 무기물에서 그 생명을 이끌어낸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식물은 죽은 물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기적으로 특히 적합한 상징이라 하였다.⁶⁶⁾

정신 psyche 의 육화된 부분은 죽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 신의 모습을 닮은 부분은 살아남고 지속되는데, 심리학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이는 자기의 상징이다. 이 자기의 이미지들은 죽음에도 살아남는 생명을 갖고 있다.⁶⁷⁾

한국에서도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유사를 모

64)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12.

65)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14.

66)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37.

67) Von Franz ML,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같은 책, p14.

아 지은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나오는 진표율사(眞表律師)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에, 죽음 뒤에, 유골, 그리고 유골이 묻혀진 무덤(땅, 흙과 같은 무기물)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율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발연수로 돌아와 수도하고 효도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율사는 임종할 즈음에 절의 동쪽 큰 바위 위로 올라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공양하다가 유골이 흩어진 이후에야 흙으로 덮여 무덤을 만들었다. 얼마 후 그곳에서 푸른 소나무가 나왔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말라 죽고 다시 한 그루가 자라났다. 그 후 다시 한 그루가 자라났는데, 그 뿌리는 [두 그루가] 하나였다.

지금도 두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는데, 공손히 절하는 사람이 소나무 아래에서 뼈를 찾으면 어떤 때는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얻지 못하기도 했다. 나는 스님의 뼈(성골聖骨)가 다 없어질까 염려되어 정사년(1197년) 9월에 특별히 소나무 아래로 가서 뼈를 주워 모아 통에 담으니 세 홉 남짓 되었으므로 큰 바위 위의 두 나무 아래 비석을 세우고 뼈를 묻었다.”⁶⁸⁾

무라야마 지준은 이 이야기에서 뼈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여 돌에 묻는다는 것은 진표율사의 경우처럼, 위대한 승려의 뼈이기 때문에 분산시키지 않고 오래 이것을 묻어둠으로써 전인격의 힘을 간직하게 함이고, 여기서 뼈는 원시신앙에서 혈육과 같이 부패하거나 멸실되지 않고, 활력이 사후에 집중되는, 변화하여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⁶⁹⁾

자기는 죽음에도 살아남는 생명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죽음에도 살아남는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식물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개성화 과정에 있어서 의미하는 것이다. 초분에서 해마다 덮은 이엉은 따라서 죽은이에게 바라는 부활이자, 산자들이 개성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학적인 죽음에서 살아남게 하는 자기의 존재를 의미한다.

10. 초분의 해체와 이장

초분으로 묘를 만들고 난 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차매장을 하게 된다. 매장을 할 때에는 먼저 초분에 간단한 제사를 올리고, 짚으로 된 커버를 건

68) 일연, 김원중 역(2007) : “관동풍악의 발연수 비석의 기록”, 《삼국유사》, 민음사, 서울, p490.

69) 村山 智順(무라야마 지준) 저, 정현우 역(1991) : 《한국의 풍수》, 명문당, 서울, p344.

어내고, 뼈를 거둔다.

새벽 일찍 자손들은 해체할 초분 앞에 가서 술과 과일 등으로 간단하게 제사(고유제라고 하며 조상에게 어떠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 초분장에서는 이장을 미리 알리는 의도)를 행하고 나서 준비한 낫 등으로 초분을 해체한다.

관에는 처음 묻을 때 같이 넣어두었던 새끼들이 그대로 있어 이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묻을 장소까지 손으로 혹은 차에 실어 이동한다. 남은 사람은 초분을 감쌌던 이영과 용마름을 불태운다.

초분을 해체할 때, 초분 옆에는 유골을 수습할 판을 가져다 두는데, 한국 전통장에 흔히 쓰이는 칠성판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대발을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⁷⁰⁾

관이 나오면 유골을 확인한다.

뼈는 창호지 위에 올려두고(편의상 신문이나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솔잎이나 솜을 이용해서 먼지나, 지꺼기를 제거하고 뼈를 닦는다. 살점이 남아 있을 경우는 대나무 칼로 살점을 제거하는데 보통 완전히 살이 없어질 무렵에 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인 한국의 전통장례에서 머리카락, 손 발톱 등은 주머니에 담아 시체와 같이 관에 넣는 반면 초분 이후 이차장에서는 남아있는 살점, 먼지만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까지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⁷¹⁾

머리카락의 제거의 주제는 입문의례 에서 새롭게 탄생한 입문자의 모습의 상징으로 종종 표현된다.

“삭발은 오래 전부터 헌신, 이를테면 영적 변환, 또는 입문식(initiation)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시스 Isis의 사제들은 머리를 삭발했고, 알다시피 머리 중앙부 삭발은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환의 ‘징후(Symptom)’는 변화된 사람이 대머리인 새로 태어난 아이[새로 입교한 자(Neophyt, Quasimodogenitus)]라는 고대의 사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영웅 신화에서 영웅은 수태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괴물의 뱃속에 머무르는 동안에 기승을 부리는 열기(찌는 듯한 열기)때문에 머리카락을 모두 잃어버린다. 이러한 고대 관념들에 기초하는 머리 중앙부 삭발 관계는 물론 의식의 진행에 필요한 이발

70) 정종수(2003) : 같은 책, p120.

71) 정종수(2003) : 같은 책, p123.

사의 참석을 전제로 한다. 특이하게도 또 다른 연금술 ‘비의’를 다룬 문헌으로 1616년에 나온 화학적 결혼(Chymischen Hochzeit)에도 이발사가 나온다. 이 책에서는 영웅이 비밀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발사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삭발식과 유사한 의식이 벌어진다. 여기서도 삭발은 입문식과 변환과정이라는 의미를 동반한다.⁷²⁾

이제 죽은 자는 그 살이 썩어지고, 그 머리카락이 제거된 모습으로, 즉 밤바다의 향해 후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났으며, 상징적으로 머리카락과 부속물이 제공된 상태가 됨은 이후 변환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리모토 요시키의 연구에 따르면 버드나무 젓가락이나 대나무 젓가락, 또는 형겔을 이용해 닦기도 하며 마른 짚으로 솔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본장을 할 때의 뼈는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⁷³⁾

관을 열어서 살이 다 썩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관을 열지 않고 그대로 매장하기도 하는데, 청산도에서는 뼈를 씻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도 보고되었다.⁷⁴⁾

내가 참여한 초분 이장의 경우에도 남아있는 살은 없었으며 따로 닦거나 제거하지는 않았다.

심리학적으로, 대나무 칼이나 젓가락, 천이나 솔로 남은 지꺼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로고스(logos)와 지혜를 이용하여 본질적인 부분(뼈)과 오염되고 더러운, 어두운 부분(썩은 살과 먼지들)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행위이다. 개성화 과정이 더 진행되기 위해, 의식적인 결단과 집중이 필요하다.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순수한 모습, 때묻지 않은 뼈로 환원시키는 이 작업은 뼈로의 환원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뼈를 창호지에 놓을 때는 머리부터 차례로 놓으며 등뼈부분은 실로 꿰어서 그 순서를 맞추기도 한다.⁷⁵⁾ 온전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뼈가 썩어 없어진 경우 흙으로 골격을 만든 다음 관에 넣어 최종적으로 묻게 된다.

72)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7) : “미사에서의 변환의 상징”, 융기본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서울, pp200-201.

73) 구리모토 요시키(1998) : 같은 논문, p13.

74) 장보왕(1982) : “청산도의 민가와 민속”,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서울, pp211-212.

75) 박종오(2005) : 같은 논문, p311.

등뼈를 맞추어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상징적으로 척추를 바로 세움으로써, 생명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들 중 하나는 제드 기둥(*the djed pillar*)이었는데, 이는 나무와 척추를 암시한다. 제드 기둥에 대한 상형문자는 “오래가는”, “안정적인”이란 의미이다. 원래, 이는 저승의 신 오시리스와 그의 영원히 발기된 남근(나무로 만들어진, 신화에 따라, 행해지고 사라진 것을 대체하는) 가지가 제거된 신성한 나무와 연관이 있어왔을 것이다. 제드 기둥은 왕위 계승식의 마지막에 세워졌는데, 이는 이제 왕국의 안정뿐 아니라 오시리스와 동일시된, 죽은 파라오의 영원에서의 부활을 상징한다.⁷⁶⁾

사자의 서 주문 155에서, 제드 기둥은 매장되는 날, 죽은자의 목에 놓여진다. “몸을 일으키시오, 오 오시리스여, 옆으로 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아래 물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크게 기뻐할 금으로 만든 제드 기둥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⁷⁷⁾

오시리스는 여기서 척추뼈를 얻고, 그의 힘을 다시 얻는다. 약해진 존재는, 척추를 가짐으로서 다시 몸을 일으켜 되살아난다.

“신성한 기둥(인간의 몸에서는 척추)은 상징적으로 위의 것과 아래의 것, 자상과 천상-혹은 자아와 원형의 영역을 결합시킨다. 이 ‘극히 중요한 연결(vital link)’은 사실 정신에 안정성을, 인격에 뼈대를, 진정한 삶의 무게를 지탱할 불굴의 용기를 제공한다.”⁷⁸⁾

뼈가 썩어서 없어진 경우, 흙과 물을 섞어 뼈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흙과 술을 섞어 뼈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연구를 위해 인터뷰 한 김장섭씨는 아버지에게서 비밀스레 전수받은 핵심이라고 하면서 술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001년 행해진 초분 이장의 경우에도 술과 진흙이 사용되었다. 당시 머리 부분은 한지 위에 술과 진흙으로 얼굴 형상을 빚고 그에 맞게 얼굴 뼈 조각을 맞추며, 기타 뼈를 사람의 형태대로 다 맞춘 다음에 한지로 싸서 이동하였다.⁷⁹⁾

76) the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ARAS)(2010) : *The Book of Symbols*, ed. Ami Ronnberg, Taschen, Köln, p336.

77) Faulkner RO(1985) : 같은 책, p155.

78) the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ARAS)(2010) : 같은 책, p336.

79) 정종수(2003) : 같은 책, p81.

일본에서 보고되는 씻골의 과정에서도,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먼저 뼈에 묻어있는 부착물을 천 등으로 제거하고, 뼈에다 술을 붓고 물로 씻는 방법’이 일반적이라 하였다.⁸⁰⁾

이렇게 흙과 술을 섞어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가톨릭 미사의 혼합(Commixtio in the Catholic Mass)와 비슷하다.

가톨릭 미사에서 혼합 Commixtio 은 빵과 포도주를 섞는 의식이다.

윙은 몘수에스타이의 테오도루스(Theodorus von Mopsueste)(428sus 사망)의 말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섞고 결합시켜 하나로 만든다. 이때 그것은 둘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누구나 깨닫게 된다.”을 인용하며 혼합의식을 거룩한 변화로 해석한다.⁸¹⁾

레오니우스의 전례서(Sacramentarium Leonianum)(7세기)는 혼합을 그리스도의 천상적 본질과 지상적 본질의 혼합으로 해석한다. 훗날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다. 혼합에서 피(=혼)가 무덤에서 쉬는 주님의 몸과 다시 결합되기 때문이다. 변화의 물에 몸을 담그는 침례 행위를 의미 심장하게 도치시키면, 혼합에서는 몸(Particula)이 정신의 상징인 포도주 속에 잠기는데, 이는 몸이 거룩해지는 것과 일치한다. 그래서 혼합을 부활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⁸²⁾

초분의 해체 후에 뼈에, 흙에 붓는 술은 뼈의 부활을 의미한다. 뼈에 부어지는 술과, 없어진 골격을 대신해 술로 빛은 흙의 형상은 혼합의 의식이며, 거룩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 변화는 뼈의 부활이고, 생명의 원천에서 다시 자라나는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초분 기간 내내, 죽은자와 산자 모두에게 이행기는 위험의 시기이다. 이행기를 겪지 못해내는 수도 있고, 이행이 실패하기도 한다. 이는 죽음과 재생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통과의례에 있어 공통된 요소일 것이다. 초분에서도 이는 이차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재매장하거나, 앓은초분 형태의 초분을 만들어 유골을 다시 임시 저장형태로 보관하거나, 매장 후에 나쁜 일이 생겼다 하여 다시 초분을 만드는 것으로 이행의 실패를 극복한다.

80) 구리모토 요시키(1998) : 같은 논문, p27.

81)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윙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7) : “미사에서의 변환의 상징”, 윙기본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서울, p187.

82)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윙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7) : 같은 책, pp187-188.

뼈를 추스른 후 관에 넣어서 여러 자손들이 함께 묻고는 봉분을 만든다. 봉분이 다 만들어지면 평토제를 드린 후 혼백상자를 산소에 묻고 지방이나 신주를 집으로 가지고 간다.

많은 경우 초분을 없애고, 최종적으로 땅에 묻는 것과 함께 애도기간이 끝나고, 유족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죽은 자는 조상 신들의 세계로 편입되고, 유족들은 사회로 다시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최종적으로 무덤이 완성되고 나면 무덤을 만드는데 참여한 인부들, 가족, 마을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먹는다

“장례 후나 기념 축하때의 식사는 통합의 의례에 속한다.

그 목적은 그룹의 모든 살아남은 구성원들을 각각 재결합시키는 것이고, 때로 죽은자와 재결합하는 것이다.”⁸³⁾

유족들은 애도를 중단하고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해서 다른 세계로 편입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맺는 말

음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정신적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개념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정신의 전체성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소멸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다. 무의식의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실존의 전후에 연속성의 감정을 제공하는 원형적인 본질을 경험하는 적절한 기회를 갖는다. 우리가 원형에 대해 더 알수록, 그 생명에 다 참여할 것이고, 그 영원성과, 초월성을 깨닫게 된다.”⁸⁴⁾

삶의 초월성은 음이 말했듯, 변환과 재생을 통한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드러내는 신성한 의례에 참여하는 입문자의 경험에서, 입문자는 이 신성한 드라마

83) Van Gennep A, trans. Vizedom MB and Caffee GL(1960, originally published in 1909) : *The Rites of Pass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pp164-165.

84) Jung CG(1954) : *The Symbolic Life*, C.W.18,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ara. 1572.

의 단순한 목격자일수도 있고, 여기 가담할 수도 있고, 이 신성한 드라마에 감동받을 수도 있다. 또 그는 의례의 행위를 통해 신과 자신을 동일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일부 과정을 통해, 입문자가 영향받고, 감동받고, 축성되고, 단순한 참여에 내려진 축복을 받는 동안, 객관적 실체나 삶의 형태가 의례에 따라 변환되는 것이다. 그가 점차 참여되어질수 있지만, 이 변환과정은 그의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다. 오시리스를 죽이고, 분해하고, 흘뿌리고, 그 뒤에 그가 녹색의 밑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례적으로 연기하는 입문자는 이같은 방식으로 모든 형태의 변환에도 살아남는, 불사조와 같이, 다른 영향들 사이에서, 엘레우시아 신비의 특징인 불사의 희망으로 계속해서 새로이 떠오르는 생명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경험한다.⁸⁵⁾

초분에의 참여는 이와 유사한 점이 많다. 날것 그대로의 절차는 보는 이에게 큰 감정의 동요와 충격을 가져다 준다. 내가 만난 초분과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이러한 장례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큰 변화(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의 시작)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다. 죽음은 단순한 삶의 끝이 아니고,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또다른 삶의 시작이다. 죽음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따라서 큰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죽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죽음을 다루는 절차로서의 상장례 의례, 그 중 우리나라의 초분은 따라서 삶과 죽음의 심리화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초분이라는 상장례 의례의 형식에 포함된 깊고 풍부한 삶과 죽음의 상징들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자아중심적인, 의지로 움직이고, 야심 만만하고 성공 지향적인 인생관에 집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과 죽음의 중심에 있는 주제, 자기의 영원성과 개성화의 원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초분의 중요한 목적은 시체를 썩히고, 뼈만 남기는 것이다. 초분의 전 과정은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닮았는데, 죽은 자의 영역을 조사하는 것이 무의식의 원형적 흐름을 의식화하는 과정인 것처럼, 초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초분 과정에서, 시신은 심오한 변환의 과정을 겪게되며, 그 변환(부활과 재생)을 위

85) Jung CG(1940/1950) :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9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ara. p208.

한 조건은 뼈에 내재되어있는데, 초분의 전 과정은 살을 썬혀 이 뼈를 남기는 것, 그리하여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생명의 연속성, 영원성을 구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초분을 적절하게 이해한다면, 개성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살을 썬힌다는 것과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와 겸허한 태도를 취하고, 가장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원형적인 세계(무의식의 영역)에 다가가기 위해 낮은 태도를 버리고 포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제조건을 만드는 과정이 초분에서의 부패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생명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그 본질,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스러질 것(시체와 썩)과 그것의 부패, 영원히 살아남을 것(뼈와 솔가지)이 같이 존재하는 초분은 삶과 죽음이 같이 존재함을, 그리고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상징을 제공한다.

초분에서 드러나는 풍부한 식물의 이미지들은, 모든 것이 사라진 죽음의 상태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신에 끝없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원히 존재하며 의식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모든 보이는 생명이 죽었을 때 조차, 그 본질, 핵심은 죽지않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초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이제 초분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 초분의 과정속의 깊고 풍부한 상징들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리모토 요시키(1995): “장산도의 초분”, 《남도민속연구》, p3.
 _____ (1998): “한일 이중장제에 관한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영(1995): “청산도의 마지막 초분”, 《샘이깊은물》, 서울.
 박종오(2005): “송이도의 초분 고찰-‘얕은 초분’의 형태와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민속학》, p41.
 대한성서공회(2007):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서울.
 이광규(1969): “초도의 초분: 초도장제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p3.

이두현(1974) : “장제와 관련된 무속연구-특히 초분과 씻김굿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p6.

이부영(1969) : “입무과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p2.

일연, 김원중 역(2007) : “관동풍악의 발연수 비석의 기록”, 《삼국유사》, 민음사, 서울.

장보웅(1982) : “청산도의 민가와 민속”,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서울.

정중수(1990) : “우리나라 장제”, 《영원한 만남-한국상장례》 국립민속박물관, 미진사, 서울.

_____ (2003) : 《한국의 초분》, 국립민속박물관, 삼광문화사, 서울.

주강현(2002) : 《왼손과 오른손-좌우 상징, 억압과 금기의 문화사》, 시공사, 서울.

최래옥(1995) : 《한국 민간 속신어 사전》, 집문당, 서울.

Abt T(2005) : *Introduction to Picture Interpretation*, Living Human Heritage Publication, Zurich, Switzerland.

the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ARAS)(2010) : *The Book of Symbols*, ed. Ami Ronnberg, Taschen, Köln.

Wolkstein D, Krammer SM(1983) : *Inanna : Queen of Heaven and Earth*, Harper and Row, New York, NY.

Eliade M, 이윤기 역(1992) : 《샤머니즘》, 도서출판 까치, 서울.

Eliade M, trans. Trask WR(2004) : *Shamanism :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and Oxford.

Eliade M, trans. Task WR(1994) :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 ; The Mysteries of Birth and Rebirth*, Spring Publications, Putnam, 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azer JG, 박규태 역(2005) : 《황금가지 제1권》 을유문화사, 서울.

Frazer JG(2009) : *The Golden Bough :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A New Abridgement from the Second and Thi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Faulkner RO, ed. Andrews C(1985) : *The Ancient Egyptian Book of the Dead*, revised ed., University of Texas Press/British Museum Press, Austin, TX.

Hertz R, trans. Needham R, C(1960, reprinted in 2004) : *Death and the Right Hand*, Routledge University Ed.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Oxford, UK.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_____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7) : “미사에서의 변환의 상징”, 융기본저작집 4,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서울.

Jung CG(1940/1950) : C.W.9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_____ (1942/1954) : C.W.11,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rinceton

-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_____ (1946) : C.W.16, *The Psychology of Trans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_____ (1954) : C.W.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Kinsley D(1997) : *Tantric Visions of the Divine Feminine : the Ten Mahāvīdyā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CA.
- Meier CA(1989) : *Healing Dream and Ritual*, 3rd ed., Daimon Verlag, Einseideln, Switzerland.
- Schweizer A(2010) : *The Sun God's Journey through the Netherworld*,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Y.
- Turner V(1969) : *The Ritual Process :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Transaction, New Brunswick, NJ.
- Van Gennep A, trans. Vizedom MB and Caffee GL(1960, originally published in 1909) : *The Rites of Pass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Von Franz ML(1981) : *Alchemy*, Inner City Book, Toronto, Canada.
- _____, trans. Kennedy EX and Books V(1986) : *On Dreams and Death*, Shambhala, Boston and London.
- _____ (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revised ed., Shambhala, Boston, MA.
- 村山 智順(무라야마 지준) 저, 정현우 역(1991) : 《한국의 풍수》, 명문당, 서울.

Shim-Sŏng Yŏn-Gu 2016, 31 : 2

〈ABSTRACT〉

***CHOBUN*, Understanding the Double Burial Custom
in Korea from a Jungian Perspective :
Focusing on Putrefaction and Reduction to Bones**

Jahyeon Cho, M.D.*

Chobun refers to a temporary grave covered with straw thatch that contains a corpse until its flesh is gone. When all the flesh has rotted away, the straw grave is disassembled and only the bones are retrieved. Therefore, *Chobun* is an example of a secondary burial custom (German : Doppel Bestattung) that is composed of a first temporary funeral for processing the corpse's flesh, and a second permanent burial of the final remains (bones or ashes).

The duration of the temporary burial is determined by the time needed for decomposing the flesh of the deceased. Building a *Chobun* progresses putrefaction and reduction to bone.

In the literature of alchemy, putrefaction and new life occur simultaneously. The purpose of rotting is to make the flesh disappear, leaving only its essence. It is making the physical body enter a spiritual state, so that the dead can enter into a different world. One must endure the unstable rotting process until the smell of flesh has faded. The rotting process is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terrible, polluted aspect of the corpse, while maintaining a helpless, passive posture, in order to allow new possibilities. When we try to approach an archetypal aspect of the unconscious, it is often experienced in threatening, aggressive ways.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the unconscious offers us the blessing of a new spiritual awakening and renewed sense of life, only when we have the courage to see this terrifying and contaminated side of our psyche. This is exactly what putrefaction means.

Bone and skeleton symbolize the indestructible, imperishable, and essential elements of life. Bone is the minimum unit and foundation for regeneration,

where new life can grow.

Reduction to bone is moving back to the origin of life, to the womb. Psychologically, it means discarding one's ego-centeredness and allowing the Self to lead the entire process of individuation. Going through the painful process of reduction to a skeleton for the purpose of further development is a declaration of the death of the ego, aiming at the liberation from perishable flesh and acquisition of the spiritual, regenerative, and immortal elements of life.

Chobun also denotes the yearly decay and revival of life, especially of vegetal life. In *Chobun*, this symbolic meaning of the vegetal cycle of life is emphasized to represent the part of life that survives even after death. Vegetation related to *Chobun* deals with the continuity of life and psychologically with the Self. Images of vegeta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life beyond death, which is the existence of the Self, the source of energy that constantly renews and rejuvenates the consciousness.

KEY WORDS : *Chobun* · Temporary burial · Putrefaction · Reduction to bones.

*Department of Dream Sleep Clinic, Seoul, Korea